

11월27일 '제41회 군승의 날' 행사에서 연무대 법당 신축불사 '선포'

육군훈련소 새 법당 불사가 시작됐다.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자광스님)는 지난 11월27일 제41회 군승의 날 기념식에서 육군훈련소 법당 신축불사를 시작하는 선포식을 올렸다.

육군훈련소 법당 신축불사는 교구 본사 주지 스님 전원이 자문위원을 맡고 중앙신도회장이 군종교구장과 더불어 공동추진위원장을 맡는 등 층계가 총망라한 범종단적 불사로 진행된다. 육군훈련소는 현재 법당 호국 연무사가 있지만 넘쳐나는 훈련병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해 진작부터 신축불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신축법당은 5000명을 수용할

들이 1억원 약정서를 전달했다.

대한불교진흥원도 신축불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벌써 많은 단체, 개인들이 불사 동참의사를 표명했다.

불사 선포식은 육군훈련소 법당 호국 연무사의 현재 모습과 실상을 화면으로 보여준데 이어 고문 자문위원 추진위원장 위촉식에 이어 선포식과 발원문 순으로 진행됐다.

위촉식에 이어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 불교계 지도자들은 훈련소 법당 신축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자 역설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법에서 "육군훈련소에 한국불교 미래의 씨앗을 뿌려야



군불교 발전위한 합장
 지난 11월27일 제41회 군승의 날 행사에 참가한 육해공군 군승 140여명과 교구장 자광스님이 국방부 법당 호국 원형사에서 군 포교와 종단 발전을 위해 더 정진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김형주 기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41주년 군승의 날 행사는 원로의원 혜정스님(도선사), 총무원장 자승스님, 중앙총회회장 보선스님, 포교원장 혜홍스님, 박정기 군불총회장 등 스님과 각 종단 대표, 신도대표, 군승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육군

군종교구장·중앙신도회장 추진위원장 24개 교구본사 주지스님 자문위원 위촉 130억규모 대불사 범 종단 차원서 추진

수 있는 매머드급으로 법당 이외에도 교육관 요사채 휴게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예정이다. 건축에 드는 금액은 약 1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날 군승의 날 행사에서 앞으로 훈련소 법당 신축 불사를 이끌어갈 고문과 추진위원을 위촉했다. 고문에는 도선사 부조실 현성스님, 전포교원장 도영스님, 초대 군종교구장 일면스님이 위촉됐다. 또 24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 전원이 자문위원(위원장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으로 위촉됐다.

불사 실무는 책임지고 이끌 공동추진위원장은 군종교구장 자광스님과 김의정 중앙신도회장이 맡았다. 불사 선포식과 더불어 이날 류홍우 보덕학회 이사장이 1억 원을 전달했으며 육해공군 군승

한다"며 "훈련소 신축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모두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교구장 자광스님도 봉행사에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결집하는 육군훈련소를 군의 정신교육과 포교의 중심지로 삼으려 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법당을 지어 매년 5만명 이상 신심 돈독한 수계 불자를 양성하여 사회에 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총회회장 보선스님도 격려사에서 "육군훈련소 법당과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내의 교육관 건립 등, 중차대한 불사를 위해 교계의 역할을 결집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역시 "훈련소 법당 신축불사는 무량복전을 일구는 원을 전달했으며 육해공군 군승

주지진산식 대신 나눔행사

제6교구본사 마곡사가 신입주지 원혜스님의 진산식을 대신해 지역 소외계층에게 김장김치를 나누는 자비 나눔 행사를 펼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마곡사는 지난 11월24일, 25일 양일간 경내 대광보전 앞에서 배추김치 5000여 포기를 담궈 지역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자비의 김장 나눔 한마당'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8월24일 열린 마곡사 산중총회에서 신입 주지후보로 선출된 원혜스님의 제2대 주지 진산식을 겸해 열려 각별한 의미가 있다.

지난 2003년 화환 대신 받은 성금을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한 전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철안스님의 진산식, 지난 2008년 보은군에 불우이웃성금 1000만원과 쌀(10kg) 1000포대를 기탁한 제6교구본사 범주사 주지 노현스님의 진산식, 지난 6월 '나눔을 행하는 향기로운 불사'를 주제로 이웃 나눔 행사로 조촐하게 치러진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우송스님의 진산식, 이어 형식보다 내실을 택한 이번 행사는 향후 교구본사 진산식에 새로운 전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오후 경내 대광보전 앞에서 열린 김장김치 전달식에서는 총무원장 자승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용산스님,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허운스님을 비롯해 주호영 특임장관, 이원구 총남도



지난 11월25일 마곡사가 주지 진산식을 대신해 '자비의 김장 나눔 한마당'을 열어 소외된 지역주민에 김치 5000여포기를 담아 보시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마곡사주지 원혜스님 11월24~25일 지역 주민에 김치 5000여포기 전달

지사, 이준원 공주시장, 심대평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마곡사 주지 원혜스님은 이 자리에서 이원구 총남도지사와 이준원 공주시장에게 각각 김장김치 5000포기와 쌀(10kg) 1000포대를 전달했다. 이날 원혜스님은 인사말에서 "충청 공동체의 한 구성원인 마곡사와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한 이 자리가 주지 취임의 의미를 담을 수 있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의미를 밝혔다.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치사를 통해 "이

번 행사는 지역민의 고충과 아픔을 함께하는 불교적 소통과 화합의 모범적 사례"라고 격려했다.

이날 나눔 행사에는 마곡사에서 지난 9월24일 사찰과 전통불교문화원 사이에 개원한 생태농장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에서 처음으로 수확한 배추가 사용돼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전달식에 이어 함께 김장배추를 버무리는 시간을 가지며 나눔 행사를 마무리 했다.

마곡사=허정철 기자
이시영 총남도지사장

'동국대 약대 유치 결의안' 채택 고양시의회...교과부 등에 제출키로

동국대 약학대학 유치를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의회가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서 주목된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11월25일 제14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고양시-동국대 약대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경기도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난 50여 년간 정부의 각종 규제 로 인해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서 많은 규제를 받아왔다"고 전제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기 북부지역에 반드시 약대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회는 "경기북부지역에는 병원시설이 가장 많이 집중돼 있고 우수한 의료인력이 있으며 교통 인프라와 시민들의 교육 열의가 어느 곳보다 우수하다"며 "고양시와 동국대가 만들어가는 메디클러스터가 우리나라 의료관광산업의 토대를 만들고 신성장동력산업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양시의회는 95만 고양시민과 함께 약대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결의안을 교육 기술과학부와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불경금액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금강불교예술회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액을 제작 보급하여 화제다. 불경금액은 금강경, 반야심경, 현수경, 등이 있으며 크기가 3.5 x 5cm 5 x 7cm으로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크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형 주문제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전도, 불사)

한국 불교 근현대사의 산 증인

佛敎新聞 영인본 한정판

www.ibulgyo.com

타블로이드판 全9卷 1Set 전 9권 각권 420면
 1960년 1월 1일(창간호) ~ 1980년 11월 30일

지난 1960년부터 1980년까지 불교신문(대한불교로 창간)은 20여 년간 홀로 뚜렷이 불교 언론의 외길을 뚫어뻑 걸어왔습니다. 이 기간동안 통합종단 대한불교 조계종이 출범했으며, 불교신문은 교단 발전을 위해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도제양성·역경·포교 등 3대 지표를 이행하는 데 앞장 서 왔습니다. 교단 현대화를 위한 여러 활동에도 앞장서 많은 힘을 쏟았음은 물론입니다.

당시 유일한 교계언론이었기에 20년 치 불교신문에는 교계의 역동적인 사건, 행사, 학술자료, 크스님들의 사자후, 문화, 예술, 각종 연재물 등 자료들이 들어있습니다. 교단 현대화를 위한 현대 한국불교의 피와 땀이 그대로 녹아 들어있는 보물창고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1960년~1980년 불교자료를 찾으려면 '불교신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사는 현대 한국불교가 생생하게 들어있는 불교신문을 영인 제작해 아래와 같이 '한정 판매' 합니다. 영인본 불교신문을 소장하는 것은 가장 귀중한 자료를 옆에 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변에 권해도 부끄럽지 않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 특별판매 : 600,000원(1Set)
- 구입문의 : 불교신문사 (02)730-4488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3-01-0394-683 / 농협 053-01-139956 (예금주 불교신문사)